

The Dreams of 4.5 Billion People Unite Asia

45억의 꿈, 하나 된 아시아

Incheon Asian Games 2014 Close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폐막



The grand finale finally came for the 17th Incheon Asian Games. The 16-day event was the first perfect Asian Games, with all 45 member states of OCA participating, and was very fruitful with 17 new world records, 34 Asian records, and 116 Asian Game records.

It's time for all the winners and losers to put aside the records and places, and to hold hands. Young Asians have competed with all of their strength and skills at Incheon, and became families and friends with one another. More than 13,000 athletes and officials have become one despite their different ethnicities, languages, and religions. Immigrants in South Korea welcomed them like their own family, and the athletes gained strength from the cheers of those who were from their own countries.

Not only did the Incheon AG serve as a meeting ground, but it also served as a

starting point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sports games in Asia. For example, Incheon Metropolitan City held the Incheon Vision 2014 Program so that the AG could become a festival for all, not for a few nations strong in sports.

The AG also served as a field of reconciliation for North and South Korea. VIPs from North Korea visited Incheon, held various meetings with South Korean governmental officials, including PM Jung Hong-won, and participated in the closing ceremony. Just like the slogan of the AG, "Diversity Shines Here," Incheon once again shined as a city of peace between the two Koreas. The fire of world peace will continue to light the city even after the end of 2014 AG, and all of Asia will remember Incheon. The next Asian Games will be held in Jakarta, Indonesia, in 2018.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16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OCA) 45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한 첫 아시안게임이었다. 규모에 걸맞게 세계 신기록 17개, 아시아 신기록 34개, 대회 신기록 116개 등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순위는 경기장 안에서만 빛난다. 이제 목에 건 메달보다 승자와 패자가 함께 마주 잡은 손이 더 빛난다. 아시아 젊은이들은 인천의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은 숨을 들이마시며 힘과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함께 맘을 흘리면서 우리 모두 가족이며 친구임을 확인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 그리고 종교가 달라도 선수·임원 1만3천여 명은 모두 하나가 되었다. 이주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족들은 친정 식구 맞이하듯 가슴 벅차하며 열렬히 환영했다. 모처럼 고국에서 온 선수들을 향한 응원은 모국 선수들에게 커다란 기쁨이자 에너지원이었다.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아 스포츠 균형발전에 시발점이 되었다. 인천시는 지난 8년 동안 '인천 비전(Vision) 2014'을 진행해 이번 대회가 스포츠 강국 위주의 잔치가 아닌 모두의 축제로 승화 시켰다.

이번 대회는 남북한 화해의 현장이 되었다.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인천을 방문,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 인사와 접촉을 갖고 폐막식을 본 뒤 돌아갔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란 대회 슬로건에 걸맞게 인천이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트는 평화도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14AG의 성화는 꺼졌지만 인천은 세계 평화의 뜨거운 불로 영원히 활활 타오를 것이다. 이제 아시아는 인천을 기억할 것이다. 2018년 제18회 아시아경기대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다.

김민영 편집장 Photograph and article by · Kim Min Young · gem0701@hanmail.net

Photo News



"Do I Look Pretty?"

"저 예뻐요~???"

A girl is wearing a traditional Japanese costume, a yukata, at the 2014 Incheon-China Culture Festival. As she holds up a traditional Japanese umbrella, a kasa, a reporter approaches her and asks, "How do you like your Japanese dress?" The girl grins sheepishly. "It's good." But the reporter continues. "How is it good?" The girl doesn't answer.

It always feels strange and wonderful to wear foreign clothing weaved from the culture it represents. Maybe the girl's answer is this: "Do I look pretty? Do I look good? I wonder. Am I pretty?"

2014인천·중국문화관광페스티벌에 참가한 소녀가 일본 옷 입기 체험을 하고 있다. 유카타와 전통우산 카사를 쓰자 방송리포터가 기다렸다는 듯 다가가 질문을 던진다. "일본 옷 입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소녀의 답은 짧고 햇살에 눈이 부신 소녀의 미소는 수줍다. 리포터의 질문은 이어진다. "어떻게 좋아요?" "...." 잠시 대화가 끊긴다. 다른 나라의 옷을 입어보는 것은 언제나 낯설고 신기한 체험이다. 옷을 통해 문화를 엿보기도 한다. 소녀는 마음 속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제가 예쁜지? 잘 어울리는지? 궁금해요. 저 예쁜가요?'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Photograph and article by · Kim Min Young · gem0701@hanmail.net



A Wave of Passion, Now Begins!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

Hosted Asian Paralympic Committee (APC)
Organized 2014 Incheon Asian Para Games Organizing Committee
Location Incheon and nearby cities (Anyang, Hanam)
Participated about 6,000 people from 42 countries (4,800 team members and 1,200 reporters)
SNS blog.incheon2014apg.org
Website www.incheon2014apg.org

2014 Incheon Asian Para Games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4.10.18 - 10.24

주최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
주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장소 인천광역시 및 협력 도시(안양, 하남)
참가규모 42개국 6,000여명 (선수단 4800명, 미디어 1200명)
SNS blog.incheon2014apg.org
홈페이지 www.incheon2014apg.org

Love and Understanding will solve Multicultural Problems.

다문화시대의 해법은 '사랑과 이해' 아닐까요?

'Dagachi', the Multicultural Group in Incheon International High School 국제고 다문화 동아리 '다가치'



Students from different backgrounds gathered. It's the story of a multicultural group in Incheon International High School, Dagachi. Founded in 2013 as an unofficial group in the school, Dagachi became official in March 2014, with three founding members and seven succeeding members.

The group began its activities by publishing a Chinese textbook called the "Dagachi Workbook," which explains traditional Chinese stories, poems, and sayings that the mothers of the member students used to hear in their childhood, in Korean, English, and Chinese. To let the kids understand such contents easily, the textbook provided various playing materials, including dictations, mazes, coloring exercises, paperworks, and various other materials that compared Korean and Chinese culture. The Dagachi Workbook volumes 1 and 2 are now distributed to multicultural houses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across

the Incheon area. The group also held meetings with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backgrounds through the Dagachi Childrens' Culture Camp at the Ju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t was the second camp since the last winter vacation, and the three-day camp gave multicultural and Korean children the opportunity to explore the languages and cultures of China, Vietnam, and Japan.

Meanwhile, the Dagachi group is about to publish a calendar and word cards, the "Dolbae Calendar." The calendar can be used as a wall calendar and torn into word cards after a month passes. The group has produced approximately 1,000 copies of the calendar and distributed it to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multicultural homes across Incheon, and is currently producing the "Dolbae Calendar 2015" to address problems the group noticed through a users' survey. The 2015 calen-

dar will be distributed this November.

The group keeps learning something from their activities, even it's supposed to be for multicultural families. Publishing the workbook allowed the members to better understand various cultures across the world, and the members also had the privilege to meet many children with colorful backgrounds. As many members pointed out, the group gave them the chance to heighten their cultural sensitivity through various multi-culture-related activities.

Since its foundation, the group has had an exciting year, and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without the people who gave strong support to the group. The Dagachi group of Incheon International High School will do its best to represent the young multicultural groups in South Korea.

십인십색(十人十色)의 학생들이 모였다. 인천국제고등학교 학생이 만든 다문화 동아리 '다가치'다. 2013년 자율동아리로 시작한 다가치는 2014년 3월에 정식 동아리가 되면서 1기 부원 3명과 7명의 2기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다가치 활동의 시작은 중국 다문화 교재 '다가치 워크북'의 출간이었다. '다가치 워크북'은 엄마가 어려서 듣고 읽었던 전래 동화나 시조, 고사성어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옮겨 담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따라쓰기, 미로찾기, 색칠공부, 종이 공작 등 다양한 놀이자료와 함께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비교한 문화 이해자료도 넣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가치 워크북 1호와 2호로 출간돼 인천지역 다문화 가정과 교육기관에 전달 했다. 지난 여름에는 인천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가치 어린이문화캠프>를 통해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거

울 방학캠프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었다. 중국, 베트남, 일본으로 나뉘어 3일 동안 진행된 캠프는 다문화 가정과 비(非)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함께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해보는 활동이었다.

현재 다가치 동아리는 다문화 단어카드 달력인 '돌배 달력' 출간을 앞두고 있다. 돌배 달력은 벽에 걸어 달력 겸 단어 학습 판으로 사용하고, 달이 지난 달력은 한 장씩 떼어 단어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직접 개발한 상품이다. 지난해 1000여 부를 만들어 인천지역 센터 및 다문화 가정에 배부했고, 이후 사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보완점 등을 고려해 현재 '2015 돌배달력'을 제작 중이다. 제작된 돌배달력은 11월 이내로 배부될 예정이다.

모두 다문화 가정을 위한 활동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동아리 부원들이 배우는 것이 더 크다. 다문화 교재를 만들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고, 국경을 떠나 어린이와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 "다양한 다문화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 감수성을 배워가는 계기가 되었다"고하는 동아리 회원도 많다.

동아리가 생겨나고 일 년이 숨 가쁘게 흘러간 것 같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온 다가치 동아리의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의욕만 앞설 뿐 어설픈 자신들을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인천국제고 다문화 동아리 다가치는 다문화 시대에 청소년이 주축이 되는 다문화 동아리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글·다가치 부장 주서빈 학생 / 사진·차지는 기자
Written by Ju Seo-bin, head of the Dagachi Group
Photograph by Cha Ji Eun · minsable@hanmail.net

주서빈 학생은 초등학교는 중국에서, 중학교는 미국에서 졸업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인천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Ju Seo-bin spent his elementary school years in China, and graduated from an American middle school. After returning to Korea, he's now attending Incheon International High School.



The Do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will participate in the "Facebook Friends Sports Festival" (페친체전) on October 18. As a joint program with the Zeminan Institute (제미난 연구소), the sports festival will hold interesting and unique games such as "Don't Sweat" at the Handball Stadium in Olympic Park.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18일 '페친체전'에 참여한다. '페친체전'은 페이스북 그룹 '제미난 연구소'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땀 흘

리면 반칙인 놀이'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종목의 운동회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다.

Namdo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will host the "Rainbow Barista Class" until December 30 as part of the lifetime program for immigrant women. In association with the Incheon Dong-gu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nd private and local organizations, the barista class will cover from theories about coffee, roasting, hand-drip methods, and making various coffee beverages. The classmates will participate in various local events and show their talents to the visitors as members of the local society.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레인보우 바리스타 교실'을 오는 12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교육은 인천동부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지역 및 민간의 기관들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커피이론부터 로스팅, 핸드드립, 다양한 커피음료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향후 지역행사에서 이주여성들 스스로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Ganghwa-gu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s now providing educational programs for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qualification exams to provide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s for immi-

grant women. The current course, which began in September, will continue until December 12, from 10AM to 5PM every Monday, and 1PM to 5PM every Tuesday and Friday.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매주 중입 및 고입 점검고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기초학력을 높여 취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9월부터 시작된 교육은 12월 12일까지 계속되며 교육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화·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The beginning of life in South Korea

한국생활의 시작

Incheon Immigration Office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For immigrants, the Immigration Office is the starting point of life in South Korea, with functions such as visa issuing, authorizing stay permits, applications for permanent residency, etc. And for non-Koreans who still don't have permanent residency or nationality, the office is like a trustworthy friend who tells them useful tips about life in South Korea.

Also, the Immigration Office has employed 23 volunteers, all of them marriage immigrants, for a mentoring program for three hours on every other Thursday, as part of the early adjustment support program. The volunteers come from various countries, including China, Vietnam, Thailand, the Philippines, Uzbekistan, etc., and will help newcomers adjust to life in South Korea and learn Korean more easily. Besides the mentoring services, the volunteers also provide guidance for clients in the Immigration Office. If you want a piece of advice from them, make an appointment prior to your visit, because some of the volunteers might be absent on the date of your visit.

The Immigration Office also provides essential programs for immigrants to adjust and live independently in South Korean society. The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consists of six steps of education regarding Korean language, culture and society, from the basic first step 0 to the last step 5. The applicants can complete step 5 by passing a general evaluation. The program begins with an evaluation for the Korean proficiency test. If you can't speak Korean at all, you can begin step 0 education, and attend lectures for high-



er steps. You can also temporarily stop or end the KIIP program, depending on your status. Kim In-hye of the Incheon Immigration Office said that "Incheon Metropolitan City has more applicants than the other region. More than 4,400 applicants entered the KIIP program this year, but the completion rate is as low as 30%, due to the long curriculum period of one year, and strict policy of completion for each step." But it's the strict completion policy of the curriculum that gives applicants high satisfaction. Those who complete step 5 of the KIIP program are exempt from the written and oral tests required for naturalization, and can earn additional scores when changing their visa to F-2.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vers articles and tuition fees. You can apply for the program at the Social Integration Network website (www.socinet.go.kr).

The last application for the year 2014 is open until October 24. Besides the KIIP program, the Immigrations Office also runs various programs for South Koreans and immigrants, including social adjustment programs for returning students, life guides for foreign students, and international marriage programs.

비자발급, 체류허가 업무, 영주권 신청 등.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한국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다. 아직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비(非)한국인에게는 믿음직한 친구와도 같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 한국생활은 '탄탄대로'다.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23명. 이 선배 이민자들이 직접 멘토링에 나선다.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3시간씩 진행된다. 중국과 베트남,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선배들이 직접 한국생활과 언어문제

를 도와주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멘토링 서비스 이외에도 국내외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들 덕분에 대다수의 언어가 지원되지만 모든 봉사자가 항상 상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무소에서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0단계부터 5단계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에 대한 교육을 단계별로 나누어 교육하고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시험을 응시하게 된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종합평가를 통과해야 이수할 수 있다. 처음 교육신청을 하면 한국어 능력을 평가해 단계를 배정받는다.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 0단계로 시작해 차차 난이도를 높여갈 수 있다. 만약 교육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이나 이수 정지 제도를 이용해 잠시 중단할 수도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김인혜 씨는 "인천의 경우 타 지역보다 특히 신청자가 많다. 올해만 4400명 정도의 신청자가 몰렸다. 커리큘럼 자체가 1년 이상 걸리는데다 단계 상승이 엄격해 이수율은 30% 정도로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힘든 만큼 체계적인 커리큘럼 덕에 이수 후 만족도가 상당하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가 면제되고,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F-2) 변경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교재나 강사비용 등은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가능하다. 현재 2014년도 마지막 모집이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24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 적응교육, 유학생을 위한 생활안내 등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과 내국인을 위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글·사진 차지은 기자

Photograph and article by Cha Ji Eun · minsable@hanmail.net

Bpyeo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will hold the "Happy Start Program"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on October 17th. The Happy Start program helps immigrants to better adjust to South Korean society with early integration mentoring, educational programs for husbands and wives, and related law education. The lectures will be held from 1PM to 5PM for immigrant women through marriage and their families who did not undergo the Happy Start Program before.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17일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인 '해피스타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은 조기적응 멘토링 및 부부교육, 준법교육 등으로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초기 입국 결혼 이민자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

Gyeya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will implement driving theory examinations for marriage immigrants. The Incheon Road Traffic Safety Authority, the Department of External Investigations of Gyeyang Police Station, and Yeonse Driving School will jointly

support the driving theory examinations. The examination has been held every other month since March 2014, and the candidates can apply for the examinations from the first to 20th day of every month. The next examinations will be held in November.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운전면허 이동학과시험을 실시한다. 더 많은 이주여성들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학과시험은 인천도로교통공단, 계양경찰서의 사계 및 연세자동차학원이 연계 지원한다. 시험은 3월부터 격월로 실시되고 있으며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다음 학과시험 일정은 11월이다.

Yeonsu-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held the "2014 Global Sports Festival" on October 9 to help the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gain a sense of belonging. More than 300 people from 150 families participated in the event and enjoyed various programs, including a prize lottery.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9일 '2014 글로벌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체육대회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몸을 부딪히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장이다. 각종 이벤트 및 경품추첨으로 즐거움 더한 체육대회는 총 150가정, 300여명이 참여했다.

Look and Feel the Asian Games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가다

The Asian games through Foreign Spectacles 다문화 여성이 본 아시안게임

This autumn, South Koreans and immigrants united as Asians in the Incheon Asian Games 2014 that ended on October 4. All the Asians enjoyed the great festival; everyone cheered for their mother countries with roars that filled up entire venues, and the cheers only got louder as the end of the games came closer. But the cheers will live on to the 2014 Incheon Asian Para Games.

"I just watched the semifinal match between Thailand and Iraq! I feel sorry that Thailand lost the game, but I came here right away to cheer for South Korea." Ms. Kim King-gae, 38, said at the final matches for the male soccer event on October 2. Thailand and Iraq competed for the bronze medal in the semifinal match for male soccer, and the Thailand team lost the game with a score of 0:1. Kim dashed to Munhak Stadium as soon as the semifinal match ended.

"I can watch the whole game, because the venues are so near. You can come to the venues without a hitch. The venues are wide, and are accessible from virtually every part of the city. I came from Dowon Station to Munhak Sports Complex Station by public transport, and it was faster than I expected."

The semifinal match ended at 7PM, and she had to move fast to watch the final match starting at 8PM. She could have missed the final match because of the massive crowd, but Ms. Kim and her sister made it to their seats on time.

"Thailand has held the Asian Games as well, and I went to see the games then, cheering for the Thai athletes. And now I live in South Korea. It's much more exciting to meet the Thai athletes, and even if they lose the games, I can still cheer for the South Korean athletes. Besides, I'm now interested in other sports as well. It's always exciting to watch a sports game."

The final match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nt on with tension. When the break time came, Ms. Kim and her sister took pictures of the stadium and of the games. She was enjoying the game just as every Asian did. She will cheer, regret, enjoy, and remember. She even changed her profile picture for the SNS services to that of her with the soccer stadium as the background.

"And the ticket's cheap. I really liked it, enjoying the festival for Asians with low prices. I heard the Asian Para Games are about to open soon. I will go to those games as well."

인천의 가을, 한국인과 다문화인이 '아시아인'으로 하나가 되는 계절이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지난 4일 폐막했다.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온 아시아인들이 축제를 즐겼다. 자국을 응원하고, 한국을 응원하고, 비인기 종목을 응원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운다. 게임이 결승에 다가갈수록 그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이어진다.

"방금 태국하고 이라크 동메달전을 보고 왔어요! 태국이 졌지만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 바로 달려왔어요." 지난 2일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만난 김 King-gae(38, 태국)씨의 말이다. 태국과 이라크는 동메달을 걸고 오후 5시부터 축구전용경기

태국에 있을 때도 아시안게임을 보러 다녔죠. 그때는 우리나라니까 태국선수들을 응원하며 편하게 봤었는데, 지금은 한국이잖아요. 태국선수들을 보면 훨씬 반가워요. 태국이 지더라도 한국을 응원할 수 있어 더 많은 경기에 흥미가 생기기도 했어요. 경기는 언제 봐도 재미있어요."

남과 북의 경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계속됐다. 어느덧 전반전이 종료되고 휴식 시간. 김 씨와 동생은 휴대 폰 카메라를 들어 경기관람 기념사진을 찍었다. 볼에 새긴 태국 국기도 잘 보이도록 카메라를 맞춘다. 아시안게임을 즐기는 모습은 어느 아

시아인이 다 똑같다. 열심히 응원하고, 아쉬워도 하고, 그들만의 즐거움을 남기고, 추억한다. 김씨의 SNS 프로필 사진은 어느새 축구경기장을 배경으로 한 기념사진으로 바뀌어 있었다.

"티켓가격도 부담이 없어요. 저렴한 가격에 아시아의 축제를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제 곧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꼭 관람하러 갈 거예요."

글·사진 차지는 기자

Photograph and article by Cha Ji Eun · minsable@hanmail.net

Asian Games 2014 Final Medal Table
2014 인천아시안게임 종합국가순위

| 순위 Rank | 국가 NOC | G | S | B | 합계 Tot. | 순위 Rank | 국가 NOC | G | S | B | 합계 Tot. |
|---------|-----------|-----|-----|----|---------|---------|-------------|---|----|----|---------|
| 1 | 중국 CHN | 151 | 108 | 83 | 342 | 11 | 우즈베키스탄 UZB | 9 | 14 | 21 | 44 |
| 2 | 대한민국 KOR | 77 | 71 | 84 | 234 | 12 | 바레인 BRN | 9 | 6 | 4 | 19 |
| 3 | 일본 JPN | 47 | 76 | 77 | 200 | 13 | 홍콩 HKG | 6 | 12 | 24 | 42 |
| 4 | 카자흐스탄 KAZ | 28 | 23 | 33 | 84 | 14 | 말레이시아 MAS | 5 | 14 | 14 | 33 |
| 5 | 이란 IRI | 21 | 18 | 18 | 57 | 15 | 싱가포르 SIN | 5 | 6 | 13 | 24 |
| 6 | 태국 THA | 12 | 7 | 28 | 47 | 16 | 몽골 MGL | 5 | 4 | 12 | 21 |
| 7 | 북한 PRK | 11 | 11 | 14 | 36 | 17 | 인도네시아 INA | 4 | 5 | 11 | 20 |
| 8 | 인도 IND | 11 | 10 | 36 | 57 | 18 | 쿠웨이트 KUW | 3 | 5 | 4 | 12 |
| 9 | 대만 TPE | 10 | 18 | 23 | 51 | 19 | 사우디아라비아 KSA | 3 | 3 | 1 | 7 |
| 10 | 카타르 QAT | 10 | 0 | 4 | 14 | 20 | 미얀마 MYA | 2 | 1 | 1 | 4 |



Welfare is instead of Village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보다 '복지'

Childbirth and Caring Services 출산·육아 서비스 알아보기



There's an African proverb that says, "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baby." While it may take a whole village community to give birth, raise, and educate a baby, people in the modern age have lost the sense of community. But don't worry. There are many welfare services for expecting mothers and babies. Don't miss the national welfare services that a village can never give you.

Every pregnant woman can get free healthcare services by registering at a nearby public health center. The public health centers provide free medical examinations, including tests for early pregnancy, blood chemistry, and hepatitis tests. They also provide expecting mothers with folic acid medication for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pregnancy, and iron medication for mothers at the 20th week of their pregnancies and

later. The public health centers also hold various lectures regarding childbirth. Pregnant women, babies and children with nutritional risks can benefit from the "Nutrition Plus Project," which

supports them with education on nutritional facts, and foods like rice and vegetables to support them with sufficient nutritional values. You can apply for the various healthcare services for pregnant women and the Nutrition Plus Project at public health centers nationwide (except in the Ongjin-gun area, Incheon), and for the Nutrition Plus Project, you must bring the required documents with you for application.

You can also get governmental support for expensive vaccinat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rovides financial support for 12 kinds of vaccinations required for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newborn to 12. The vaccinations are free at the public health centers or appointed medical clinics nearby. The public health centers may also provide health examinations, dental, and optical

care services for babies and children, but you have to check out which of the services are provided at your local public health centers.

There is also financial support for childcare. Babies and pre-school age children can attend day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 and the government supports the tuition. For children who don't go to kindergarten or daycare centers, the government supports the family of the children with home care allowances. You can apply for the financial support of childcare a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at your residency, or at the Bokji-ro webpage (www.bokjiro.go.kr).

'아이를 키우는 데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는 데는 정말 한 마을이 필요하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도시에서는 마을이라는 개념조차 낯설다. 그렇다고 걱정하진 말자. 엄마를 위한, 아이를 위한 출산·육아 서비스가 준비돼 있다. 마을 보다 큰 국가의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말고 살펴보자.

모든 임산부는 무료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가까운 보건소에 등록만 하면 무료 산전검사를 통해 임신 조기진단과 혈액검사, 간염 검사 등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준비 교실과 같은 출산대비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해주고,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에게는 철분제를 지원한다. 또한 영양적으로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나 영유아의 경우 '영양플러스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함께 쌀이나 채소 같은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양플러스 사업'은 전국 보건소(인천 옹진군 제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해야 한다.

비용과 관리가 걱정되는 아이들 예방접종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부터 만 12세까지 국가예방접종 12종 백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소나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지정의료기관은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영유아 건강검진, 치아 및 시력관리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지만 보건소마다 실시 여부가 달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보육료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영유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고 국가에서 각 연령에 맞는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복지포털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글·사진 차지는 기자

Photograph and article by Cha Ji Eun · minsable@hanmail.net

Vietnamese Rice Noodles, a Taste Forged from the Fires of War

전쟁으로 시작된 세기의 맛, 베트남 쌀국수



Rice noodles are one of the most popular foods in Southeast Asia. And among the various kinds of rice noodles, Vietnamese rice noodle soup, or "pho," is popular in South Korea. Pho is easy to make; roll the rice dough into thin layers, dry them, and cut them into thin noodles. Add chilies, coriander, and onions to create an exquisite aroma for the soup. The cooking method may vary depending on the region and ingredients, but the most popular pho by far is beef pho, with the deep and juicy taste of beef infused into the soup.

Pho has become representative of Vietnamese cuisine, but not many people know that the rice noodle recipe as we know it was established during the French occupation of Vietnam. In the mid-1880s, the French army that occupied Hanoi in northern Vietnam gave beef

recipes to the region, establishing the modern pho that uses beef as an ingredient. Even the name, pho, was derived from the French word "feu," as in pot au feu. The modern form of pho became popular throughout Vietnam in the 1950s, when the country was divided into two countries, North

and South Vietnam, and people from Hanoi began to sell the dishes in Ho Chi Minh City. Pho landed in South Korea in the early 2000s, when people began to seek healthy food. With its low calories and plain but deep taste, pho is now one of the "foreign dishes" that South Koreans crave.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즐겨먹는 쌀국수지만 그중에서도 베트남 쌀국수가 인기다. 베트남 쌀국수의 레시피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불린 쌀가루를 얇게 펴 말린 뒤 가늘게 썰어 면을 만든다. 국물에 숙주, 칠리 고추, 고수, 양파 등을 넣어 독특한 향을 낸다. 지역과 재료에 따라 조리법이 다양하지만 가장 대중적인 것은 역시 소고기 쌀국수다. 소고기의 진한 맛이 우리나라와 감칠맛을 더하기 때문이다.

'쌀국수'하면 베트남이 생각날 정도로 쌀국수는 베트남의 맛을 대표한다. 세계인의 요리로 성장한 베트남 쌀국수에 아픈 역사가 깃들여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880년 중반, 베트남 북부 하노이를 점령한 프랑스군이 쇠고기 요리법을 전해주면서 지금의 쌀국수가 생겨났다. 민속음식인 쌀국수에 쇠고기 요리법이 더해져 만들어진 것이다. 쌀국수의 이름 'pho'도 프랑스군의 식사를 뜻하는 '포 토 피(pot au feu)'의 피(fe)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된 1950년대에는 남쪽으로 내려간 하노이 사람들이 호찌민에서 지금의 쌀국수를 팔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한국에는 2000년대 초 건강식의 유행과 함께 상륙했다. 낮은 칼로리와 담백한 맛,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에게 쌀국수는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외국음식이 되었다.

글·사진 차지는 기자

Photograph and article by Cha Ji Eun · minsable@hanmail.net

Tasting Multi Culture through Food:

The Life of Diligent Shukron in Incheon

성실한 슈크론의 인천살기



Workers with an F9 visa (for unskilled workers) come to South Korea with a little bit of the Korean Dream on their minds. There are many foreign workers who are trying to overcome the barriers of language and culture in Incheon's industrial scene, and Shukron from Indonesia is one of them. As an indispensable member of the company, he smiles even at the toughest premises.

외국인 근로자들은 F9비자(비숙련노동자)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다. 인천 산업 현장 곳곳에서도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좁히며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슈크론도 그중 한명.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그의 미소는 현장에서 더욱 빛난다

Korean Matters

At Hanil Engineering Co., Ltd., in Namdong Industrial Complex, Shukron was working with his partner. He concentrated on his work; following his hands with his eyes, he strikes with hammers, tightens screws, and works with wrenches. His usual smile was no-

where to be seen.

Shukron came to South Korea in November 2011. He settled in Incheon with his F9 visa, got a job at Hanil Engineering Co., Ltd., and has been working at the company ever since. For the first four years and 10 months, he honed his skills in welding, living in a dormitory the company provided. After visiting his home in Indonesia for three months, he came back to work at the company in December 2012, and soon became the only foreign worker in the company, which

has 17 employees.

Mr. Lee Gi-goon, the CEO of Hanil Engineering Co., Ltd., who's been watching Shukron for seven years, says, "We had two foreign workers aside from Shukron, and the other guys moved to other companies. But Shukron stayed, working just as hard and earnestly as he did on his first day here." It seems the Indonesian has earned warm trust from the CEO.

While most of the foreign workers leave their initial workplace before the contracted period of four years and eight months to seek out a higher salary, Shukron didn't break his promise.

And that's why he earned firm trust from his colleagues. One of his superiors compliments him. "He (Shukron) won the Prize for Model Foreign Workers from the SMBA Incheon Branch. Twice, that is." The prize proves the trust and recognition he earned from his Korean colleagues. But his face is as calm as ever, despite the many compliments from his friends.

"I still don't understand Korean that much,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me to

get the job done as quickly as possible. You never hurry in Indonesia. It may seem that I'm working slowly, but I'm trying to be as thorough as possible."

All the foreign workers who wish to work in South Korea learn Korean in their countries and go through various tests, but Shukron says that's not enough to work better in South Korea, for a longer period of time.

한국어가 중요해요

남동공단 소재 (주)한일엔지니어링 현장에서 만난 슈크론은 작업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평상시에는 늘 미소 짓지만 작업하는 내내 그의 표정은 진지하다. 시선은 작업하는 손에 고정되어 있다. 조이고 돌리고 망치로 팡팡~거침없이 작업을 이어간다.

그는 2007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왔다. 낯선 한국으로 F9비자로 들어와 인천에 터를 잡았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한국에서의 첫 직장이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열심히 용접을 배웠다. 4년 10개월을 모두 채우고 2012년 출국을 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2012년 12월 첫 직장으로 다시 왔다. 현장 직원 17명 중 유일한 외국인 근로자다.

그를 7년 째 지켜본 이기곤 (주)한일엔지니어링)사장은 말한다. "처음엔 외국인 근로자는 슈크론과 1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중간에 다른 업체로 갔어요. 슈크론은 아주 성실하게 일하면서 계속해서 여기에 있어요." 흐뭇한 표정으로 칭찬을 잇는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첫 회사와의 근무계약기간인 4년 10개월을 온전히 채우는 것은 쉽지 않다. 다른 업체에서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준다면 짐을 싸서 옮기는 것이 다반사다. 슈크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든 동료들이 그를 따뜻한 시선으로 칭찬한다. 한 직장 상사가 슈크론의 칭찬을 덧붙인다. "이 친구는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서 주는 외국인 근로자 모범사원상을 두 차례 받았어요." 그 상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인정해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동료들의 칭찬에도 슈크론의 표정은 한결 같이 차분하다.

"한국어가 많이 부족해서 일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빨리 빨리 하고 싶는데 인도네시아는 빨리 빠리가 없어요. 천천히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꼼꼼히 하고 있어요."

한국행을 선택한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으로 오기 전 고국에서 사전에 한국어를 배우고 시험을 치른다. 그러나 그는 현장에서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더 배워야 하고 그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I'd Never Seen Snow Before I Came to South Korea

It's because of his two elder brothers that Shukron left Pekalongan, Central Java, Indonesia. His brothers used to work in Ansan, which made it easier for him to seek work in South Korea. The two brothers are now making batik, the traditional clothing of Indonesia, and earn good money from it. Shukron also has dreams for the future. "When I came to South Korea, I loved its spring. Winter, too, with its white snow coming down from the sky. I'd never seen snow before, until I came to South Korea."



He is shutting two things together 현장에서 용접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October 10, 2014 • DASARANG

Still, being a Muslim, he finds it hard to eat the local dishes. So he cooks his own meals in the dormitory. After working hard during weekdays, he meets with his girlfriend for dates on weekends. Now he smiles shyly. "My girlfriend and I have gone to Wolmido, Busan, and Gapyeong so far."

After returning to Indonesia, Shukron will marry his girlfriend, Juliyati (27), who's been supporting him during his days in South Korea. He was lucky to meet an Indonesian woman in a foreign country, and feels happy whenever he talks about his girlfriend. There are fewer than 10 women workers from Indonesia, while more than 370 Indonesian male workers reside in the Incheon area. The two came to know each other on Facebook, and thanks to the proximity of their workplace, they soon fell in love with each other. Now they share the same dream: "My girlfriend loves South Korean street foods, like tteokbokki, fish cakes, tempura, and skewers. We're

thinking of selling street food in Pekalongan; she wants to do it."

The next Asian Games will be held in Jakarta, Indonesia, not far from Shukron's hometown of Pekalongan. In a passing moment, he commented that Semarang, the sanctum of Indonesian street food, and Solo, with lots of clothing, are just like Namdaemun.

After the interview, Shukron picks up his welding tools again. Giant iron pipes are connected as he skillfully maneuvers the tools, splashing the hot iron debris against his masked face. And his dreams burn intensely behind the protective mask.

한국에서 하얀 눈을 처음 봤어요

인도네시아 자바섬 페카롱간에서 TV로만 보던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것은 두 형의 영향이 크다. 그는 5남 4녀 중 막내다. 그의 두 형은 안산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는 자연스레 형들의 뒤를 따라 한국으로 왔다. 두 형은 현재 인도네시아 고향에서 바틱(인도네시아 전통 옷) 만드는 일을 한다. 제법 수입이 좋은 일이다. 슈크론도 역시 미래에 대한 꿈이 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봄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겨울도 있고 눈이 있어서 좋았어요. 눈은 한국에 와서 처음 봤어요."

이슬람교도인 그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 음식 먹기가 수월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는 회사 기숙사에서 하루 세끼를 모두 손수 만들어 먹는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휴일이면 여자 친구와 함께 한국에서의 추억도 만든다.



With a girlfriend Juliyati at Hanmaum Track Meet for Foreign Workers 여자친구 율리아띠와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에서

다. "월미도에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가평도 가요." 그가 수줍게 웃는다.

그는 여자 친구 율리아띠(27)와 고국으로 돌아가 결혼할 예정이다. 슈크론과 율리아띠는 타국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안이 된다. 슈크론은 인천에서 고국의 여성을 여자 친구로 사귀는 행운을 얻었다. 그는 여자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을 느낀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남자 근로자는 현재 370여명인데 비해 여자 근로자는 10명도 안된다. 둘은 운명처럼 페이스북에서 만났다. 회사의 위치도 가까워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 둘은 이제 같은 꿈을 꾸다. "여자 친구는 한국의 떡볶이, 오뎅, 튀김, 꼬치구이를 좋아해요. 아마도 인도네시아 페카롱간에서 둘이 '길거리 음식'을 팔지도 몰라요. 여자 친구가 그걸

원해요."

2018년 제18회 아시아경기대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다. 같은 자바섬에 있는 페카롱간은 자카르타에서 멀지 않다. 그는 인도네시아에 가면 '스마랑'과 '솔루'에 꼭 가보라고 추천한다. '스마랑'은 길거리음식을 많이 팔고 있고 '솔루'는 동대문처럼 많은 옷들이 있다는 설명이다.

차분하고 수줍은 많은 슈크론이 용접 기구를 든다. 거대한 배관이 그의 손에서 용접된다. 붉은 불꽃이 작업마스크를 쓴 그의 얼굴로 마구 튈다. 단단하게 영근 그의 속마음은 그가 만지는 단단한 쇠와 닮은 것 같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Photograph and article by Editor · Kim Min Young · gem0701@hanmail.net



Shukron's time card 슈크론의 출근카드



Inheriting Tradition in Incheon | The Daegeum Flute

An Instrument of Gentlemen that Cuts Through the Wind

바람을 가르치는 선비의 악기 '대금'

The Daegeum is a traditional Korean flute made of bamboo. On its surface are six finger holes and one blowing hole that create a calm yet clear sound that runs through the air. The Daegeum has been considered an instrument of gentlemen since the Unified Silla period, and is one of the "Three Bamboos" (the Daegeum, Joongeum, and Sogeum) and the "Three Strings" (the Geomoongo, Gayageum, and the Hyangbipa). It always takes good materials to make a good Daegeum. Bamboo trunks that endured cold winter are cut and dried hard for three to four years, and then the trunks are repeatedly soaked with salt water, dried, and soaked again with wild sesame oil. After emptying their insides, the processed trunks are finally made into the Daegeum flutes. Master Daegeum Maker Lim Gyeong-bae, the 6th Intangible Cultural Asset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still manufactures his flutes in the old way. If you want to see him working and hear the clear sound of the Daegeum, go to the Incheon Intangible Cultural Asset Learning Education Center, which opened in last September. The Center introduces 24 different kinds of Intangible Assets, out of 30 Intangible Assets selected by the South Korean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except for the assets on Ganghwa-do Island.

대금은 우리나라 전통 관악기다. 6개의 지공(구멍)과 청공 1개(구멍)으로 흔들리듯 고요하고 깊은 바람소리를 세상에 풀어 놓는다. 우아함과 품위를 상징하는 대금은 선비들의 악기로 통한다.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 악기인 삼현(거문고, 가야금, 향비파)과 삼죽(대금, 중금, 소금) 중의 하나다. 좋은 대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 선택부터 공을 들여야 한다. 한겨울을 지낸 대나무를 채취해 3, 4년 그늘에 바짝 말린 뒤 소금물에 절이고 건조시킨 후 들기름에 절이기를 반복한다. 시간으로 단단해진 대나무의 속을 비우고서야 비로소 대금으로 태어난다. 전통방식을 살려 대금을 만드는 이는 인천시무형문화재 6호 임경배 대금장이다. 대금 만드는 과정과 그 깊은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인천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가면 된다. 지난 9월에 개관을 한 이곳에는 대금뿐만 아니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와 인천시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30개 종목 중 강화도 소재를 제외한 24개 종목이 입주해 있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Photograph and article by Editor · Kim Min Young · gem0701@hanmail.net



A Californian Autumn in Incheon

인천과 캘리포니아의 '단풍지는 가을'

Incheon Grand Park 인천대공원



As time goes by, the leaves are preparing for the upcoming winter. The leaves begin to change their colors, as if they want the visitors to praise how beautiful they actually are. People are attracted to the colorful leaves, and so was I. On a beautiful autumn day, I set off to Incheon Grand Park. The park was just as beautiful as I expected, with so many colorful leaves decorating the sidewalks. I just had to take pictures of them. The leaves reminded me of their cousins in California

There are many national and state parks in California. Such natural treasures are well preserved, with all the maple trees and other plants you can find in Incheon. But there's one difference Incheon Grand Park has from the

parks in California: the playthings. Visitors were having good time in their own way in the park. Some were camping for a night; some were taking a walk in the afternoon, and some borrowed bikes to ride around the park. The park has everything from a small lake, forests, campsites, and stages, to playgrounds, and you can do anything to share your precious time with someone special. Fancy a basketball game in the playground?

While some people may busy themselves, even on weekends, many will find their peace of mind at Incheon Grand Park. A day, maybe a half of the day, in the park will be something that lingers on for a lifetime. Never miss those colorful leaves before the biting winter comes.

계절이 바뀌고, 나뭇잎도 변화를 준비한다. 가을은 1년 중 나들이객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다. 나뭇잎들은 보란 듯 자기의 색을 자랑하고 나섰다. 곱게 물든 단풍이 그들을 유혹한다. 단풍이 한창인 가을, 나는 인천대공원을 찾았다. 공원입구에서부터 울긋불긋한 길이 길게 펼쳐졌다. 그 순간, 나는 카메라를 들어 올릴 수밖에 없었다. 한걸음씩 인천대공원 안으로 들어갈수록, 난 캘리포니아의 단풍이 생각났다.

캘리포니아엔 국가나 주에서 보호하는 공원이 많다. 보물처럼 보호되는 국립공원은 자연환경이 아주 잘 보존돼 있는 곳들이다. 단풍이나 자연환경은 캘리포니아 북부지역과 인천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국립공원은 자연환경에 집중돼 있다면, 인천대공원은 이밖에도 즐길 것들이

많은 점이다. 공원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인천대공원은 하룻밤 캠핑의 낭만을 즐길 수도, 나른한 오후 산책을 할 수도 있는 곳이다. 작은 호수, 수목원, 캠핑장, 공연장, 그리고 운동장까지, 소중한 사람들과 주말을 보내기 안성맞춤이다. 자전거를 빌려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자연을 만끽할 수도 있다. 친구들과 농구 환판을 해도 좋을 운동장도 있다.

주말조차 바쁘게 지내는 요즘이다. 하지만 인천대공원은 소중한 주말을 할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그곳에서 보내는 하루 혹은 반나절의 시간은 평생의 추억이 되어준다. 겨울이 되기 전, 인천대공원의 단풍은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 중 하나다.

글·다니엘 와이머
Written by Daniel Weimer



Let's Take a Walk at Incheon Arboretum!

It's sunny, it's breezy, and it's time to take a walk. If you want to enjoy the scent of autumn, there's no place like Incheon Arboretum of Incheon Grand Park. There are more than 1,065 kinds of plants and trees in this approximately 254,600m2 suburban arboretum, and it takes less than an hour to walk along the path. You can also borrow traditional

straw sandals, called jipsin, and apply for various experience programs at the Visitors' Post near the entrance of the arboretum. Put on the jipsin, take a walk, and feel the autumn leaves under your feet.

• Closed on

Every Monday, Gregorian & Lunar New Year's Day, and on Chuseok holidays.

• Opening Hours

10AM ~ 6PM (In November and December, till 5PM)

걸어볼까? 인천 수목원

따뜻한 햇볕과 신선한 바람, 산책하기 좋은 날씨다. 짧은 시간에도 가을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끼고 싶다면 인천대공원의 인천수목원 만한 곳이 없다. 도심에서 살짝 비껴난 인천 수목원엔 7만 7천여 평에 1065종의 식물들이 살아 숨 쉬고 있다. 길을 따라 쭉 걸으면 한 시간이 채 되지 않는 코스다. 수목원 입구에 위치한 탐방객안내소에서 쉼터를 빌리거나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다. 쉼터와 함께 가을 낙엽을 밟으며 유유자적 거닐어 보자.

• 휴무 : 매주 월요일, 신정, 설·추석연휴

• 이용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11~12월은 5시까지)



Incheon Grand Park, the Best Experiences of Nature

Incheon Grand Park is a resting place and experience venue for Incheoners. The Greenhouse is a favourite place for parents with kids, with its vast collection of tropical and subtropical plants, cactus,

trees, and fleshy plants. The rose garden is a spring favorite with its beautiful roses flowering and filling up the garden. If you want an experience, the Environment & Future Pavilion is a must-see place; you will have some time to think about our environment and the future of nature at the same time. For kids, there are also zoos, lakes, and the Marsh Eco Park around the region.

자연학습 최고의 장소, 인천대공원

인천대공원은 시민들의 힐링장소이자 체험학습장이다. 열대·아열대 식물과 선인장·다육식물이 전시된 온실은 추운 날씨에도 아이들과 둘러보기 좋다. 봄이면 빨강고 노란 장미가 가득한 '장미원'도 볼 수 있다. 체험학습을 마음먹었다면 '환경미래관'까지 가보는 것도 좋다. 자연과 환경문제, 미래의 자연환경까지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이밖에도 어린이 동물원, 호수, 습지 등 아이와 함께하면 좋은 학습장소가 가득하다.

• 문의 : 032-466-5880

글·사진 차지은 기자
Photograph and article by Cha Ji Eun · minsable@hanmail.net

Art Day of Seo-gu Culture Center

<A Date At 2PM – Gala Show of Tchaikovsky's Ballet Masterpieces>

서구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장 2시 데이트 – 차이코프스키 3대 발레 갈라 쇼>



It's time to watch three masterpieces of Tchaikovsky's ballet works. Edited highlights from the three masterpieces of the maestro's bal-

let works will be onstage, featuring the White Cat and the Bluebird from "Sleeping Beauty," the "Dance of the Four Swans" and the pas de deux

from "Swan Lake," and the "Dance of the Snow Fairies" from "The Nutcracker." The show will also have short lectures on the dance scenes, ballet movements and mimes, which will give the audience a deep understanding about "seemingly boring" ballet performances.

- **Date :** October 29 (Wed.), at 2PM
- **Venue :** Grand Theater of the Seo-gu Culture Center
- **Entrance Fee:** Post-Performance Ticket, the *Nanoomae*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 명작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하이라이트가 재구성돼 무대에 오른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고양이 춤, 파랑새 등과 '백조의 호수'의 4마리 백조, 그랑 파드되 등으로 꾸며지며, '호두까기인형' 중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춤으로 구성된 스노우 요정들의 군무 또한 압권이다.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과 발레동작 및 마임 등을 배워보는 시간도 갖는다. 평소 접하기 힘들고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발레공연의 재안무를 통해 클래식 발레가 갖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이다.

- **일시 :** 10월 29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입장료 :** 감동후불제 나눔 사랑 티켓

Schedule October

10.18 Sand Arts 샌드아트



Various emotions, including encouragement, pain, and hope, are expressed on a sandboard, with a story that delivers messages from the Incheon Asian Para Games.

격려, 아픔, 눈물 속 희망 등 모래로 표현되는 다양한 감정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삼아 성공적인 인천 APG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Date : October 18 (Sat.), 2PM
Venue : Auditorium of the Incheon Culture-Art Complex

Entrance Fee : Free

일시 : 10월 18일(토) 오후 2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무료

10.19 'Love Concert' for the Successful Opening of Asian Para Games APG 성공개회 '사랑의 음악회'



The beautiful harmony of an orchestra of disabled people will move the audience. It is supported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isabled People for Cultural Exchanges in South Korea.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의 '사랑의 음악회'는 발달, 지체, 시각 등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누구보다도 멋진 연주를 들려주는 단원들의 아름다운 선율은 무대를 감동스토리로 만들 것이다.

Date : October 19 (Sun.), 5PM
Venue : Grand Theater of the Incheon Culture-Art Complex

Entrance Fee : Free

일시 : 10월 19일(일) 오후 5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무료

10.21 'TAL' a Taekwondo Musical 태권도 뮤지컬 'TAL'



"TAL" is a combina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Taekwondo, traditional dancing, B-boying, and percussion. It was staged at the closing ceremony of the Guangzhou Asian Game

전통무술인 태권도와 아름다운 한국 무용, 비보잉과 타악연주의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주는 태권도 뮤지컬 'TAL'은 지난 광주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공연되기도 했다.

Date : October 21 (Tue.), 3PM and 7PM
Venue : Grand Theater of the Incheon Culture-Art Complex

Entrance Fee : Free

일시 : 10월 21일(화) 오후 3시, 7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무료

10.22 'JUMP,' a Nonverbal Performance 난버벌 퍼포먼스 'JUMP'

This is a highly acrobatic musical performance derived from two Korean martial arts, Taekwondo and Taekkyeon. "JUMP" is a nonverbal musical, yet it's so fun that it might make you scream with excitement.

태권도와 태권을 중심으로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 뮤지컬 'JUMP'는 신나는 난버벌 퍼포먼스다.

Date : October 22 (Wed.), 3PM and 7PM
Venue : Grand Theater of the Incheon Culture-Art Complex

Entrance Fee : Free

일시 : 10월 22일(수) 오후 3시, 7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무료

10.23 Exhibition "People, Spirit and Scene" 사람, 마음, 풍경 전



The Shinseggye Department Store opens a photoexhibition "People, Spirit and Scenes" celebrating the department store's 17th anniversary. Local photographers such as Boseop Kim, Yeongwook Lee and Donghyeon Ryu, who has consistently taken pictures of Incheon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to show the various different looks of the port including the city's sceneries, warm-hearted people, memory, sympathy and so forth.

신세계백화점은 개점17주년 기념으로 '사람, 마음, 풍경'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의 키워드는 인천의 풍경, 사람, 따뜻한 마음, 공감, 추억 등이다. 김보섭, 이영욱, 유동현 등 지역 내에서 꾸준히 인천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카메라에 담아내고 있는 작가들이 참여한다.

Date : October 23 ~ December 1, 2014
Venue : Shinseggye Gallery, 5th floor, Shinseggye Department Incheon

일시 : 10월 23일(목) ~ 12월 1일(월)

장소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5F 신세계갤러리

10.22 Concert of Disabled People 장애인밴드 음악콘서트

With or without disability, you will be captivated by the beautiful melodies filled with hope that the Concert of Disabled People will play. The concert is in honor of the opening of Incheon Asian Para Games 2014.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희망과 감동의 시간을 선사할 유명 장애인밴드의 미니콘서트이다. 음악을 통해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를 축하하는 흥겨움이 무대 가득 채워진다.

Date : October 22 (Wed.), 3PM
Venue : Auditorium of the Incheon Culture-Art Complex

Entrance Fee : Free

일시 : 10월 22일(수) 오후 3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무료

10.23 Hanbit Art Group Concert 콘서트 '한빛 예술단'

The Hanbit Art Group is a group of visually impaired artists who play strings, woodwind instruments, and the piano. Their wide repertoire ranges from classic to modern music. A performance by Kim Ji-Seon, a visually impaired young violin player, is also planned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은 현악기, 목관악기, 피아노로 구성된 전통 클래식 연주단체로 고전음악에서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한다. 특히, 시각장애인 영재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의 연주는 관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Date : October 23 (Thu.), 7PM
Venue : Grand Theater of the Incheon Culture-Art Complex

일시 : 10월 22일(수) 오후 3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무료

10.23 Magic Bubble Show 매직버블쇼



A fusion of bubble show and magic performance; exotic and beautiful bubbles captivate the audiences

버블과 마술이 합쳐진 퓨전버블매직 공연으로 끊임없이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신비하고 기이한 비누방울과 초대형 비누방울은 한시도 시선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Date : October 23 (Thu.), 3PM
Venue : Auditorium of the Incheon Culture-Art Complex

Entrance Fee : Free

일시 : 10월 23일(목) 오후 3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무료

The Tide of Passion Rises Again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

Incheon 2014 Asian Para Games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Another flame will be lit in Incheon when the Incheon 2014 Asian Para Games are held for seven days, from October 18 to 24, in the Incheon area, attended by more than 6,000 athletes and officials (about 4,500 athletes and 1,500 officials) from 42 countries around Asia who will compete in over 23 sports (19 paralympic and four non-paralympic sports). The Asian Para Games are aimed at raising self-esteem and helping the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ople, and to raise awareness of disabled people within the Asian community.

The Asian Para Games are derived from the FESPIC, or Far East and South Pacific Games for the Disabled, which held its first competition in Oita, Japan, in 1975. The Asian Games have been held two years after the Summer Paralympic Games since 1982.

인천 하늘에 성화가 다시 활활 타오른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인천시 일원에서 열린다. 아시아 42개국 6천여 명(선수 4천5백명, 임원 1천5백명)이 참가해 23개 종목(패럴림픽 종목 19개 + 비패럴림픽 종목 4개)에서 열전을 벌인다. 장애인경기대회는 스포츠 경기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정신과 재활, 그리고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공동체의 이해도를 높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통을 통해 색다른 감동과 배려 그리고 화합을 보여 줄 것이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모태는 극동·남태평양신체장애인스포츠대회(FESPIC)이다. 1회 FESPIC는 1975년 일본 오이타에서 개최되었다. 1982년 이래로 대회는 하계장애인올림픽 개최년도 중간 해에 열리고 있다.

차지은 기자
Cha Ji Eun · minsable@hanmail.net

Sports of Incheon 2014 Asian Para Games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경기 종목



Archery
양궁



Athletics
육상



Badminton
배드민턴



Boccia
보치아



Cycle
사이클



Football five-a-side
5인제 축구



Football seven-a-side
7인제 축구



Goalball
골볼



Judo
유도



Lawn Bowling
론볼



Powerlifting
역도



Rowing
조정



Sailing
요트



Shooting
사격



Swimming
수영



Ten-pin Bowling
볼링



Table Tennis
탁구



Volleyball
배구



Wheelchair Basketball
휠체어 농구



Wheelchair Dance Sports
휠체어 댄스 스포츠



Wheelchair Fencing
휠체어 펜싱



Wheelchair Rugby
휠체어 럭비



Wheelchair Tennis
휠체어 테니스

| No. 번 | Sports 개최종목 | Venues / Location 경기장명 / 위치 | No. 번 | Sports 개최종목 | Venues / Location 경기장명 / 위치 |
|----------|-------------------------------------|---|----------|---------------------------------|---|
| 1 | Wheelchair Dance Sports 휠체어댄스스포츠 | Ganghwa Dolmen Gymnasium 강화고인돌체육관 603, Ganghwa-daero, Ganghwa-eup, Ganghwa-gun, Incheon (with stands for 4,014)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03, 관람석 4천14석 | 13 | Table Tennis 탁구 | Songdo Global University Gymnasium 송도글로벌캠퍼스체육관 119, Songdomunhwa-ro, Yeonsu-gu, Incheon (with stands for 1,643) 인천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관람석 1천643석 |
| 2 | Athletics 육상 | Incheon Asiad Main Stadium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806 Bongsu-daero, Seo-gu, Incheon (with stands for 61,914)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806, 관람석 6만1천914석 | 14 | Football five a side 5인제축구 | Seonhak Hockey Stadium 선학하키경기장 526, Gyeongwon-daero, Yeonsu-gu, Incheon (with stands for 5,101) 인천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관람석 5천101석 |
| 3 | Archery 양궁 | Gyeong Asiad Archery Field 계양아시아드양궁경기장 855, Bongo-daero (or #111 of Seowoon-dong), Gyeong-gu, Incheon (with stands for 1,181)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서운동 111), 관람석 1천181석 | 15 | Wheelchair Rugby 휠체어 럭비 | Seonhak Gymnasium 선학체육관 526, Gyeongwon-daero, Yeonsu-gu, Incheon (with stands for 2,033) 인천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관람석 2천033석 |
| 4 | Badminton 배드민턴 | Gyeong Gymnasium 계양체육관 855, Bongo-daero (or #111 of Seowoon-dong), Gyeong-gu, Incheon (with stands for 4,304)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서운동 111), 관람석 4천304석 | 16 | Boccia 보치아 | Namdong Gymnasium 남동체육관 500, Sorae-ro, Namdong-gu, Incheon (with stands for 8,571)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500, 관람석 8천571석 |
| 5 | Cycle 사이클 | Incheon International Velodrome 인천국제벨로드롬 855, Bongo-daero, Gyeong-gu, Incheon (with stands for 1,508)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관람석 1천508석 | 17 | Football seven a side 7인제 축구 | Namdong Asiad Rugby Field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540, Sorae-ro, Namdong-gu, Incheon (with stands for 4,968)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540, 관람석 4천968석 |
| 6 | Wheelchair Basketball 휠체어농구 | Samsan World Gymnasium 삼산월드체육관 60, Cheyukgwon-ro, Bupyeong-gu, Incheon (with stands for 7,220)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관람석 7천220석 | 18 | Cycle 사이클 | Songdo Road Cycle 송도도로사이클 Songdo-dong area, Yeonsu-gu, Incheon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 7 | Sitting Volleyball 좌식배구 | Songlim Gymnasium 송림체육관 30, Yeomjeon-ro, Dong-gu, Incheon (with stands for 5,200) 인천시 동구 염전로 30, 관람석 5천2석 | 19 | Goalball 골볼 | Seonhak International Ice Rink 선학국제빙상경기장 526, Gyeongwon-daero (Seonhak-dong), Yeonsu-gu, Incheon (with stands for 3,011) 연수구 경원대로 526(선학동), 관람석 3천11석 |
| 8 | Wheelchair Tennis 휠체어테니스 | Yeorumul Tennis Courts 열우물테니스경기장 164, Yeorumul-ro, Bupyeong-gu, Incheon (with stands for 3,510)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164, 관람석 3천510석 | 20 | Lawnbowl 론볼 | Incheon Grand Park Lawnbowl Venue 인천대공원론볼경기장 236, Munemi-ro, Namdong-gu, Incheon (with stands for 132) 남동구 무네미로 236번길(장수동), 관람석 132석 |
| 9 | Sailing 요트 | Wangsan Sailing Marina 왕산요트경기장 San 143-1, Eulwand-dong, Jung-gu, Incheon 인천시 중구 을왕동 산 143-1번지 | 21 | Powerlifting 역도 | Moonlight Festival Garden Powerlifting Venue 달빛축제정원역도경기장 340, Central-ro, Yeonsu-gu, Incheon (with stands for 300)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340, 관람석 300석 |
| 10 | Judo 유도 | Dowon Gymnasium 도원체육관 10, Saetgol-ro 41-beon-gil, Jung-gu, Incheon (with stands for 2,667) 인천시 중구 섯골로 41번길 10, 관람석 2천667석 | 22 | Rowing 조정 | Hanam Misari Rowing Center 하남미사리조정경기장 505, Misa-daero, Hanam-si, Gyeonggi-do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 관람석 468석 |
| 11 | Shooting 사격 | Ongnyeol International Shooting Range 옥련국제사격장 142, Dokbae-ro, 172-beon-gil, Yeonsu-gu, Incheon (with stands for 1,337) 인천시 연수구 독배로 172번길 142, 관람석 1천337석 | 23 | Ten-pin Bowling 볼링 | Anyang Hogye Gymnasium 안양호계체육관 52, Gwiin-ro 80-beon-gil,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with stands for 10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80번지 52, 관람석 105석 |
| 12 | Swimming 수영 | Munhak Park Tae-hwan Aquatics Center 문학박태환수영장 618, Maesohol-ro, Nam-gu, Incheon (with 3,600 seats) 인천시 남구 매소홀로 618, 관람석 3천6석 | 24 | Wheelchair Fencing 휠체어펜싱 | Songdo Global University Concert Hall 송도글로벌대학공연장 119, Songdomunhwa-ro, Yeonsu-gu, Incheon (with stands for 389) 인천 연수구 송도 문화로 119, 관람석 389석 |

Unique Plays, Unique Emotion

색다른 모습, 각별한 감동



Goalball

Goalball is played with a rubber ball that makes a sound. Each team consists of three players who have to wear eye-patches and eyeshades to block their vision completely, regardless of their degree of visual impairment. The rubber ball is embedded with bells. When the rubber ball rolls, the sound of the bells tells the players the direction and speed of the ball.

골볼

골볼은 소리가 나는 공을 이용하여 상대팀 골대에 볼을 넣는 경기다. 경기는 두 팀이 각각 세 명의 선수로 진행하며 공은 고무 재질로 만들어지고 공안에 방울이 들어있어 굴러가는 방향과 속도만 짐작 할 수 있다. 선수들은 장애인등급과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경기에 임해야하기에 아이패치(눈가리개)와 아이셰이드(고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Football five-a-side

All the players, except the goalkeeper, should wear eyepatches and blinds to play this special form of football. The ball has a bell inside it to indicate the direction and speed to the players; the general rules follow those of futsal, but the foul count is accumulated as in basketball.

5인제 시각축구

골키퍼를 제외한 선수들은 아이패치와 안대를 착용한 채 경기에 임한다. 특별히 고안된 공은 방울이 들어있어 선수들은 소리를 통해

움직임을 포착한다. 규정은 풋살 규칙이 적용되나 파울을 누적 적용하는 규율이 있어 농구의 파울과도 유사하다.

Wheelchair Dance Sports

Wheelchair Dance Sports comprise in two events: Latin and Standard. The couples can consist of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with the exception of a pair of non-disabled competitors), and the key element is the harmony between partners.

휠체어댄스스포츠

라틴, 스탠다드 등 2개 종목으로 나뉘며 장애인-비장애인 콤비, 장애인-장애인 듀오 경기로 진행된다. 장애인스포츠 중 유일하게 비장애인이 선수가 되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콤비종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대회에 참가하기에 파트너 간 조화가 중요하다.

Boccia

A player earns a score by the quantity of balls thrown in the circumference of the target ball. The player can either throw or roll the ball. When the player cannot grab or throw the ball, he or she can use equipment to roll the ball. Like tennis, the game is open to the spectators. However the audience has to be quiet when the players draw a ball.

보치아

던져놓은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숫자가 점수가 되며 공을 던지거나 굴리는 방법은 어

떤 것이든 가능하다. 잡거나 던질 수 없는 경우 홈통을 이용하여 굴려서 경기를 할 수도 있다. 테니스경기처럼 많은 관중이 관람할 수 있으며, 선수사 공을 던질 때는 조용히 해야 한다.

Football seven-a-side

Specially designed for the people with cerebral palsy, football seven-a-side requires seven players. There are no off-side rules, and the ball can be rolled with one hand, but should touch the ground right after a player throws it. Though slower than non-disabled player, dribbling and pass of the disabled player creates spectators' impression.

7인제 뇌성축구

일반축구는 필드에서 11명이 뛰지만 뇌성축구는 7명이 경기를 펼친다. 드로잉은 한손으로 굴릴 수 있으며 손으로 던지자마자 땅에 닿아야 한다. 오프사이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느리지만 공을 드리블하고 패스하는 모습이 달라 관람객들에게 흥미와 감동을 준다.

Lawn Bowling

A white ball, called the Jack, is placed in a rectangular playground drawn on the lawn, and the players throw four balls towards the Jack. The nearer the balls get to the Jack, higher the score a player gets. Though designed for friendship purpose, the game requires high-level of concentration for the players to read the other side's strategy. It

also requires gentlemanly attitude respecting the opponents.

론볼

야외의 정사각형 잔디구장에서 흰색의 둥근 공(표적구, 잭)을 놓고 4개의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한다. 평소에는 우의를 다지며 즐기는 놀이지만 경기시에는 전략간파를 위해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는 신사적인 경기다.

차지은 기자

Cha Ji Eun · minsable@hanmail.net

| | | |
|---|---|---|
| 1 | 4 | 6 |
| 2 | 3 | 5 |
| | | 7 |

1. 골볼 Goalball
2. 5인제 시각축구 Football five a side
3. 휠체어 댄스스포츠 Wheelchair Dance Sports
4. 보치아 Boccia
5. 휠체어 농구 Wheelchair Basketball
6. 휠체어 테니스 Wheel-chair Tennis
7. 론볼 Lawn Bowling

Incheon, Now

지금, 인천은

10 Core Projects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Announced



Mayor Yoo Jung-Bok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announced 10 Core Projects of the city on October 6, at the celebration of his first 100 days of mayorship. During a media interview held in the conference room of the City Hall Office, the mayor announced the project, which will turn “Dream of Incheon, Future of South Korea” into reality.

The 10 Core Projects include: ▲ establishment of the Incheon Vision 2050 Future Development Plan; ▲ pursuit of financial reform; ▲ cultivation of core business sectors, including aviation, tourism, robotics, and bio industries; ▲ development of Incheon’s economy through “Youke” (Chinese tourist) marketing; and ▲ Public Transportation Enhancement Projects, etc. Also, ▲ application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for the Free Trade Zone; ▲ creating a new drive for the original downtown; ▲ creating a green city for everyone; ▲ formation of a global education city; ▲ and registration of Ganghwa-do as a World Heritage were included as core projects.

During the interview, Mayor Yoo announced that he “will never forget the first day as a mayor and create new values for the city.”

인천시 10대 핵심과제 발표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6일 인천시의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6기 인천시의 비전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현할 10대 과제를 밝혔다.

10대 과제는 ▲인천 비전 2050 미래발전계획 수립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항공·관광·로봇·바이오 등 8대 전략사업 중점 육성 ▲요우케(중국관광객) 마케팅으로 미라클 인천경제 실현 ▲인천 중심의 교통개선 프로젝트 시행이 선정되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 추진 ▲지속 가능한 원도심 성장동력 창출 ▲살고 싶은 녹색환경 도시 조성,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 ▲강화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도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취임하던 그날 그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새로운 인천의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Incheon Environment Corporation invites Mongolian Students

The Incheon Environment Corporation invited three students from the Nalaih District 109 School and one environmental official from Ulaanbaatar, Mongolia, for a four-day environmental experience starting from September 29.

The Mongolian guests started their schedule with sightseeing of the environmental facilities for wastewater, waste incineration, and food waste processing facilities of the Environment Corporation, and visited the Songdo Sinjeong Elementary School and Incheon Municipal Museum. They also went to boxing matches for the Incheon AG, in which Mongolian athletes took part.

Since 2008, the Incheon Environment Corporation has performed various environmental and social activities to prevent desertification and reduce yellow dust in the deserts of Mongolia, with financial support for tree planting and by holding events like “Making a Forest of Hope in Mongolia.”

인천환경공단, 몽골 학생 초청

인천환경공단은 9월 29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 나라이 초등학교(Nalaih district 109 School) 교사 및 학생 3명 그리고 환경공무원 1명을 초청하여 환경체험을 실시했다. 이들은 인천환경공단의 하수·소각·음식물처리 등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시작으로 송도신정초등학교 수업 참관, 인천시립박물관 등 인천 관내 역사와 문화시설을 탐방했다. 인천아시안게임을 맞아 몽골 자국선수들이 참가한 복싱과 레슬링 경기를 보며 응원을 하기도 했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몽골 인천희망의 숲 조성 나무심기’ 및 식림기금 지원 등을 통하여 사막화 방지 및 황사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환경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City Council Tours Scenes of Self Support

The Culture and Welfare Committe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Council established a “Self-Support Tour Team” on October 1 at the Head of the Committee Room. Members of the committee then went on a “Self-Support Tour” on October 6 and 10, at six local self-support centers, and communicated with beneficiaries and residents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self-support programs of the Gyeyang-gu and Nam-gu Self Support Centers.

Mr. Lee Han-gu, head of the Culture and Welfare Committee, commented that “The tour taught us how to respond to the beneficiaries’ most dire needs.”

시의회, 자활현장 민생투어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월 1일 위원장실에서 ‘자활현장 민생투어’ 발대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월 6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6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현장 민생투어를 체험했다. 계양자활의 학교 청소사업단, 남구자활의 자원재활용사업단 등에서 현장을 체험하면서 자활 참여 주민과 수혜자들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자활체험은 저소득층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수급자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고민을 함께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Medical Tourism Promotion at Athletes’ Village

The Incheon Medical Tourism Foundation established a Medical Tourism Promotions Hall within the Athletes’ Village during the AG games, and promoted the medical infrastructure and tourism of Incheon City. The Promotions Hall consisted of ► the ICC (Incheon Cardiovascular Cluster) Zone; ► Vertebrae & Joint Zone; ► Dermatology & Plastic Surgery Zone; ► Medical Examination Zone; ► and Dental & Ophthalmology Zone, so that the athletes and officials could experience the high standards of South Korean medicine. The accumulated visitors to the Promotions Hall were over 500, with more than 50 visitors daily.

선수촌 내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선수촌 내 의료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며 인천 의료 인프라 및 의료관광을 소개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의료관광 홍보관은 ► ICC(Incheon Cardiovascular Cluster:인천 심뇌혈관 클러스터)존 ► 척추·관절존 ► 피부성형존 ► 건강검진존 ► 치과·안과존 등 5개 존으로 구성되어 외국인 선수 및 관계자가 다양한 의료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의료관광홍보관에는 매일 평균 50명이 넘는 인원이 찾아 누적 방문객이 500명이 넘었다.

차지는 기자

Cha Ji Eun · minsable@hanmail.net

Contact Information of Multiculture-related Organizations in Incheon

인천시 다문화관련기관 연락처

| | | | |
|--|---|--|---|
| Multicultural Policy Department, Incheon City Hall 인천시청 다문화정책과 ☎ 032-440-2866 7F, Park Avenue Bldg., 1135-11, Guwol-dong, Namdong-gu, Incheon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5-11 파크에비뉴빌딩 7층 | Nam-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75-1577 5F, 189, Soseong-ro, Nam-gu, Incheon (Hagik-dong)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89 5층 (학익동) | Yeonsu-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51-2740 109, Cheongneungdae-ro, Yeonsu-gu, Incheon (4F, Top Pion Bldg.)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09 (탑피온빌딩 4층) | Ganghwa-gu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 933-0980 11-1, Bukmun-gil, Ganghwa-eup, Ganghwa-gun, Incheon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11-1 |
| Ju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91-1094 4F, Dapdongsinhyup Bldg., 122, Jemulryang-ro, Jung-gu, Incheon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22 담동신흥빌딩 4층 | Namdo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467-3912 59-21, Jangseung-ro, Mansu6-dong, Namdong-gu, Incheon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장승로 59-21 | Seo-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69-1560 6, Gyeongmyeongdae-ro 693beon-gil, Seo-gu, Incheon (305-13, Gongchon-dong)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693번길 6 (공촌동 305-13) | Incheon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 032-431-5757 12F, Myeongjin Plaza, 636-3, Nonhyun-dong, Namdong-gu, Incheon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6-3 명진프라자 12층 |
| Gyeya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41-2860-1 3F, Community Welfare Center, 5, Gyeyangsan-ro 102beon-gil, Gyeyang-gu, Incheon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사회복지회관 3층 | Bupyeo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11- 1800 539, Gilju-ro, Bupyeong-gu, Incheon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 Dong-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773-0297 21, Hwadojin-ro 44beon-gil, Dong-gu, Incheon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44번길 21 | |